근대 일본의 애국심교육에 관한 고찰

- 메이지기(明治期) 창가(唱歌)교육을 중심으로 -

이권희*
koni60@hanmail.net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창가 도입에 관한 정론 검토
Ⅲ. 창가를 통한 애국심 교육
Ⅳ. 애국창가집으로서의『소학창가집(小學唱歌集)』
Ⅴ. 마치며

Abstract

1872年の学制で決めている14の教科目のなかに唱歌と呼ばれる西洋音楽を置いた本来の目的は、子供の情操や身体の発達を強調した音楽教育本然の純粋な意図によるものであった。それが明治20～30年代を前後にして忠君愛國思想を根幹とする國家主義思想の発現によって、本来の教育的な意図とは違う、近代国民国家に相応しい臣民としての自覚を植え込むための道具と化する。これはまぎれもなく日本の近代教育思想史の根底に流れている定説なのだ。しかし、最近筆者は、近代日本の音楽教育の開始に関するこのような定論を疑うようになった。その理由は、いくら明治新政府の初期教育政策が個人の自立と私的利益を追求するという、西欧の近代国民国家に見られるような教育の普遍的な価値を指向したとはいえ、功利主義的価値や公共性、道徳教育を通した愛国心の涵養といった、近代国民国家に相応しい国民の規範形成に教育の究極的な目標を設定し、またこれを実現するための方法を不断に講究してきたということを見逃すわけにはいけないからである。

従って、本稿は、国民国家を目指した明治新政府が国民教育の一環として導入した明治期における唱歌教育の在り方をもう一度再検討することによって、従来「智育」から「徳育」という単線的視線で捉えてきた教育思想史の流れから脱皮し、最初から国家主義、愛国主義教育観を最高の教育的価値として設定し、それを実現するための一方便として唱歌教育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

Key Words : 唱歌, 学制, 国民国家, 忠君, 愛國, 徳育
shool song, school system, Nation-State, loyalty and patriotism, Moral Education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Ⅰ. 들어가며

메이지(明治) 신정부는 1871년의 문부성(文部省) 설치와 이어지는 1872년의 학제(學制) 반포를 통해 데라코야(寺子屋)와 사숙(私塾)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전 시대의 소규모・개인적 교육을 국가가 이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집단적 교육 체제로 바꾸어 버렸다.[1] 스승이 제자와 직접 대면하는, 이른바 일자상전(一子相伝)식으로 이루어지던 음악교육 또한 그러하다.[2]

일본의 교육사상 연구사를 돌이켜볼 때, 1872년 일본 최초의 학제(學制)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창가과(唱歌科)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어린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정조(情操) 교육이라는 음악교육 본연의 순수한 교육적 측면에서 이를 설명한다. 그러면서 메이지 10년대의 '덕육논쟁(德育論爭)'을 통해 강화되기 시작해서 1890년의 교육칙어(教育勅語) 반포를 통해 최고의 정점으로 치닫는, 이른바 도덕교육의 중시와 편중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볼 때, 음악교육의 역사 또한 근대 일본 교육사상사의 큰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발전의 형으로써 파악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일본의 교육사상 분야의 신진연구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오쿠나카 야스토(奥中康人)나 산토 이사오(山東功)의 연구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서양음악의 도입에 관해서는 제설을 제창하지만 도입 이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종래의 연구사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고,[3] 필자 또한 이러한 연구 동향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일련의 연구논문을 발표해 왔다.[4]

---

1) 학제는 교육에 관한 모든 제도를 법률로써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의 목표, 내용, 대상, 취학연령, 수학연한, 학교 간의 접속과 분화 관계 및 연계 등, 교육 전반에 관한 포괄적 제도를 말한다.

2) 예로부터 일본사회에는 가카쿠(雅楽), 노가쿠(能楽), 가부키(歌舞伎), 지우타(地歌), 샤미센 카요(三味線歌謡), 소가쿠(箏楽), 민요(民謡), 와라베우타(童謡) 등의 다양한 전통음악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다양한 일본의 전통음악들은 가가쿠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인적인 전수나 교습을 통해 계승되고, 특정한 장소에서 피로되는 지극히 사적인 음악들이다.

3) 奥中康人(2008)『国家と音楽』, 春秋社, pp.187~235. 山東功(2008)『唱歌と国語』, 講談社新書, pp.12~35.

4) 졸고(2010)「근대일본의 '소리문화'와 창가(唱歌) -창가의 생성과 '음악조사계 (音楽取調掛)'의 역할을 중심으로-」『日本思想』제19호, (2011)「근대기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과 창가(唱歌) -'문부성창가(文部省唱歌)'를 중심으로-」『日語日文学研究』제77호, (2011)「메이지(明治) 전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러나 최근 들어 학교교육에 창가를 도입한 목적이 애시 당초 국가주의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장치로 노래를 활용하고자 했던 의도된 기획 하에 이루어졌다는, 음악교육을 통해 지향하고자 했던 메이지 신정부의 국민교육관을 주목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 흐름에 의문을 갖기에 이르렀다. 왜냐 하면 신정부의 초기 교육정책이 개인의 자립과 사적 이익추구라는, 서구 국민국가에서 볼 수 있는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한편으로,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리(功利)주의적 가치와 공공성, 도덕교육의 강조를 통한 애국심 함양(涵養)이라는, 근대 국민국가에 걸 맞는 국민의 규범 형성에 국민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 왔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종래의 메이지기 일본의 교육사상 연구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인정하고 이것을 원용하면서도,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했던 메이지 신정부의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실시했던 메이지기(明治期) 창가교육의 실태를 국가주의적 교육관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함으로써 '지육(智育)'에서 '덕육(德育)'이라는 단선적 흐름으로 파악해 왔던 종래의 근대 일본의 교육사상의 흐름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국가주의・애국주의 교육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창가교육을 시작하였다는, 창가교육의 효용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창가 도입에 관한 정론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메이지기 초 일본의 학교교육에 창가(唱歌)라 불리던 서양음악을 도입하려 했던 이유는 "학업으로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고, 폐와 장기를 튼튼하게 하며,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동시에 청력을 좋게 만들고, 사고를 치밀

국민국가 형성과 교육 - 학제(学制)의 변천과 창가(唱歌) 교육을 중심으로- 」『日本思想』제21호, (2012)「메이지(明治) 후기 국민교육에 관한 고찰 -창가(唱歌)를 통한 신민(臣民) 형성과정을 중심으로-」『아태연구』제19권 제1호, (2012) 「메이지기(明治期) 국민교육과 전쟁・전쟁-창가(唱歌)교육을 중심으로-」『日本学研究』제37집, (2012)「메이지기(明治期) 일본의 교육과 전쟁에 대해서」『日本思想』제23호 등.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게 만들며, 마음을 즐겁게 함과 동시에 선한 심성을 분기케 한다"[5]는, 순수한 교육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메이지 20~30년대를 전후로 사회에 만연했던 구화만능사상(歐化萬能思想)에 대한 반발과 몇 몇 특정지역 출신자들에 의한 국정 전횡을 타도하기 위해 일어났던 자유민권운동(自由民權運動)에 대한 견제, 나아가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을 치르는 동안 충군애국(忠君愛國)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주의사상(國家主義思想)과 국체사상(國體思想)의 발현은 공리주의(功利主義)적 실학사상을 중시하는 메이지의 교육이념의 기본 프레임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고, 창가 또한 덕육(德育) 교육의 도구로 변질시켰다는 식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다름 아닌 일본에 처음으로 창가교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근대 일본 음악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자와 슈지(伊沢修二, 1851~1917)와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1853~1926)가 학교교육에 있어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했던 일련의 문서에서 강조했던 음악교육의 효용성과, 이와 같은 상신(上申)이 계기가 되어 음악교육 전반을 담당케 하기 위해 신설한 음악조사계(音樂取調係)에서 편찬한 『소학창가집(小學唱歌集)』(1882~1884)의 내실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창가교육은 애시 당초부터 아이들에게 일본이라는 통일된 근대 국민국가를 떠받치는 신민(臣民)으로서의 자각과 군주에 대한 경외심, 나아가 국가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주입시킨다는 덕육과의 관계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덕육의 성격이었던 것이다. 효행과 오륜(五倫)을 중시하는 개인의 유교적 교양으로 시작하여 그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군애국의 덕육으로 변질되어 갔을 뿐, 처음에는 순수한 예술적 차원에서 음악교육이 도입되었지만 점차 국가주의 성향을 띠기 시작하면서 덕육의 색채가 강해졌다는 식으로만 이해하는 종래의 이해 방식은 학교교육에 창가를 도입하는 과정을 전후로 해서 일어났던 교육계 안팎의 움직임을

5) 「장래 학술 진보에 있어 필수의 건(将来学術進歩ニ付須要ノ件)」愛知師範学校年報」(1875년 2월 26일자). 이 보고서는 문부성에서 간행된 『文部省第二年報』에 실려 있다.「愛知師範学校年報」는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화자료 (http://dl.ndl.go.jp)를 통해 에서 확인 가능하나 본서에서는 『音楽教育研究』1973년 2월호, p.45쪽에서 재인용.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너무 획일화·단순화 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근대 일본의 학교교육에 음악교육을 도입하는 경위에 대해서 종래의 학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하자.

1872년 반포된 학제에서는 하등소학(下等小學) 과정에서 14개, 상등소학(上等小學) 과정에서는 18개 교과목을 교습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6] 그 중 하등소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과목에 창가를, 하등중학교에 주악(奏樂)을 포함시키고 있었다.[7] 그러나 당시 서양음악은 찬미가나 군악(軍樂) 등 특수한 영역에 보급되어 있었을 뿐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멀어,[8] 창가나 주악을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문교(文教) 당국도 학교 측도 아무런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당분간 이것을 뺀다(当分之を欠く)"는 단서를 달았고 실제로 창가나 주악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같은 해 9월 8일에 포달(布達)된 학제의 시행규칙인 '소학교칙(小學教則)'에도 창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학제는 당시 일본 현실사회의 내적 요구(Social needs)에 의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번역적(飜譯的) 교육이념(Social idea)으로써 고

---

6) 학제는 교육에 관한 모든 제도를 법률로써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의 목표, 내용, 대상, 취학연령, 수학연한, 학교 간의 접속과 분화 관계 및 연계 등, 교육 전반에 관한 포괄적 제도를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이나 제도는 시대의 추이와 변화, 그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는 것이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메이지 신정부는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재를 표방하면서도 많은 경우 위정자들의 의지에 따라 제도가 정해지거나 개정되기를 반복했다. 따라서 교육목표의 변화에 따른 학제의 개정과 이에 따른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메이지 신정부 관료들이 설정했던 시대적 가치와, 일본이라는 근대국가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 학제에서는 하등소학과정(下等小学課程) 4년, 상등소학과정(上等小学課程) 4년의 2단계 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이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만 6세부터 8년간 소학교에 다니며 학습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증등교육 또한 하등과 상등으로 나누고 있다. 下等小学教科 一 綴字読並盤上習字 二 習子字形ヲ主トス 三 単語読 四 会話読 五 読本解意 六 修身解意 七 書牘解意並盤上習字 八 文法解意 九算術九々数位加減乗除但洋法ヲ用フ 十 養生法講義 十一 地学大意 十二 理学大意 十三 体術 十四 唱歌 当分之ヲ欠ク 上等小学ノ教科ハ下等小学教科ノ上ニ左ノ条件ヲ加フ 一 史学大意 二 幾何学罫画大意 三 博物学大意 四 化学大意. 下等中学教科 一 国語学 二 数学 三 習字 四 地学 五史学 六 外国語学 七 理学 八 画学 九 古言学 十 幾何学 十一 記簿法 十二 博物学 十三 化学 十四 修身学 十五 測量学 十六 奏楽 当分欠ク 학제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목은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의 '学制百年史 資料編'에서 인용.

8) 실제로 학제가 시행되었을 당시 일본에서 서양음악의 5선기보법(五線記譜法)을 해독할 수 있었던 것은 육군과 해군의 군악대원 정도였다고 한다. 中村理平(1993)『洋学導入者の軌跡』, 刀水書房, p.46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찰된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9] 그러나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창가를 교과목의 하나로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창가교육의 시발점임과 동시에 일본에서의 음악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874년 3월, 아이치사범학교(愛知師範学校) 교장으로 취임한 이자와 슈지는 그 부속 유치원에서 원생들을 대상으로 창가유희(唱歌遊戯)를 실험하였고, 그 결과를 1875년 2월 26일자로 문부대보(文部大輔) 다나카 후지마로(田中不二麿, 1845~1909))에게 제출한 메이지 7년도의 성과를 담은 '아이치사범학교연표(愛知師範学校年表)' 가운데 「장래 학술 진보에 있어 필수의 건(将来学術進歩ニ付須要ノ件)」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이자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의 창가교육에 대한 제언과 더불어 창가유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0]

> 창가유희를 시작하는 건 /창가의 유익한 점은 많다. 첫째로 지각심경을 활발히 하여 정신을 쾌락하게 한다. 둘째로 인심에 감동력을 생기게 한다. 셋째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호흡법을 조절한다. 이상은 유아교육상 창가를 꼭 실시해야하는 요지의 대강을 들었을 뿐 그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다.(이하 생략)[11]

이자와는 창가의 효능에 대해서 먼저, 1) 지각심경(知覚心経)을 활발히 하여 정신을 쾌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2)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3)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호흡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을 들며, 이것은 유

9) 唐沢富太郎 外(1961)『日本教育史』教育学テキスト講座 第3巻, 御茶の水書房,, p.171.

10) 이자와 슈지에 대해서는 졸고(2010)「근대일본의 '소리문화'와 창가(唱歌) -창가의 생성과 '음악조사계 (音楽取調掛)'의 역할을 중심으로-」『日本思想』제19호. pp.118~122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11) 唱歌遊戯ヲ興スノ件 唱歌の益タルヤ大ナリ第一知覚心経ヲ活発ニシテ精神ヲ快楽ニス第二人心ニ感動力ヲ発セシム第三発音ヲ正シ呼法ヲ調フ以上ハ幼生教育上唱歌ノ必欠ク可ラサル要旨ノ概略ヲ挙クルノミ其細目如キハ喋々此ニ弁セス「愛知師範学校年報」(1875년 2월 26일자). 이 보고서는 문부성에서 간행된『文部省第二年報』에 실려 있다.「愛知師範学校年報」는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화자료 (http://dl.ndl.go.jp)를 통해 에서 확인 가능하나 본서에서는『音楽教育研究』1973년 2월호, 45쪽에서 재인용한다. 여기에서는 '호접(胡蝶)' 등 창가유희에 사용한 창가 3곡과 더불어 자세한 율동을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자와가 사용한 창가는 서양음악도 아니었고 가가쿠(雅楽)도 아닌 당시 항간에서 불리던 아이들의 노래였던 '와라베우타'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아교육에 있어 절대로 빠트릴 수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자와는 4년간의 나고야사범학교 시절을 뒤로 하고 1875년 7월 18일 다카미네 히데오(高嶺秀夫, 1854~1910)·고즈 센자브로(神津專三郎, 1852~1897)와 더불어 미국의 교육사정, 그 중에서도 특히 사범학교의 교육현황, 교원양성방식 등을 조사하라는 문부성의 명을 받고 메사추세스주 브릿지워터사범학교(Bridgewater Normal School)로 파견된다. 그곳에서 이자와는 보스턴시의 초등교육 음악감독관이었던 메이슨(Luther Whiting Mason, 1818~1896)에게 사사(師事)하며 서양음악의 기본을 배웠다.

미국 유학을 통해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기를 체득한 이자와는 귀국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1878년 4월 8일 전통음악의 부흥과 음악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던 유학생감독관 메가타 다네타로와 연명(連名)으로 문부대보 다나카 후지마로에게 학교 교육에 있어 창가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음악교육의 효능에 대해서 기술하고, 하루 빨리 이것을 관장할 전담 부서인 음악전습소(音樂傳習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백서(建白書)를 제출한다.[12]

> 현재 서구의 교육자는 모두 음악을 교육의 한 과목을 삼고 있다. 원래 음악은 학동의 신기를 상쾌하게 하고 근학의 피로를 풀어주고, 폐와 장을 강하게 해서 그 건전함을 도와주고, 음성을 맑게 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며 청력을 좋게 하고 사고를 치밀하게 하고 또한 심정을 즐겁게 하고 그 선성을 느끼며 생기게 만든다. 이것이 교실에서의 직접적인 효력이다. 그리하여 사회에 선량한 오락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선으로 나아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회를 예법과 문화의 역으로 나아가게 하여 국민 모두 자랑스럽게 왕덕을 받아 태평을 즐기게 하는 것은 그 사회에 대한 간접의 공이다. 상기의 내용은 그 효력의 대강으로 그러한 효력이 있는 것은 분명히 서구 각국에서 볼 수 있다. 문부성에서는 일찍부터 그것을 알고 창가를 공학의 한 과목으로 삼았지만 이것을 실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음악에는 아속의 구별이 있고, 그 아라는 것은 곡조가 아주 높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 어렵고, 또한 그 속이라는 것은 노래가 몹시 천박해 그 해가 오히려 많다. 필경 이와 같아서는 학과로서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서양의 음악을 취해 바로 이것을 이용하면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와 맞을지 어떨지

12) 「学校唱歌ニ用フベキ音楽取調ノ事業ニ着手スベキ, 在米国目賀田種太郎、伊沢修二ノ上申書」遠藤宏,『明治音楽史考』,有朋堂, 1948, p.52에서 재인용. 한국어역과 하선은 필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아직 알 수 없다. ~(중략) ~ 피아를 서로 화합하여 하나의 음악을 만들면 우리 공학에 창가 과목도 만들 수 있으리라 보여 요즘 보스톤공학의 음악감독 메이슨 씨와 의논하여 그의 편저 음악괘도에 의거해 그 악보에 우리의 가사를 넣어 시험해 봤는데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즉, 궤도는 따로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겠습니다. 따라서 경비를 부탁드립니다.[13]
>
> 메이지(明治) 11년 4월 8일 유학생 감독관 메가타 다네타로
> 이자와 슈지
> 문부대보(文部大輔) 다나카 후지마로(田中不二麿) 도노(殿)

이자와의 상기의 건백서 내용은 다소 구체적이긴 하지만 큰 흐름에 있어 아이치사범학교 시절의 창가교육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이자와는 창가교육의 직접적 효능을 "학업으로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고, 폐와 장기를 튼튼하게 하며,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동시에 청력을 좋게 만들고, 사고를 치밀하게 만들며, 마음을 즐겁게 함과 동시에 선한 심성을 분기케 한다"고 정의했다. 즉, 어린아이들의 정조(情操)와 신체적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창가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같은 달 4월 20일 메가타도 단독으로 다나카 후지마로에게 「우리나라 공학에 창가 과목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사견(我公学に唱歌の課を興す仕方に付私の

---

13) '現時欧米ノ教育者皆音楽ヲ以テ教育ノ一課トス夫レ音楽ハ学童神気を爽快ニシテ其ノ勤学ノ労ヲ消シ肺臓ヲ強クシテ其ノ健全ヲ助ケ音声ヲ清クシ発音ヲ正シ聴力ヲ疾クシ考思ヲ密ニシ又能ク心情ヲ楽マシメ其ノ善性ヲ感発セシム是レ其ノ学室ニ於ケル直接ノ効力ナリ然シテ社会ニ善良ナル娯楽ヲ与ヘ自然ニ善ニ遷シ罪ニ遠カラシメ社会ヲシテ礼文ノ域ニ進マシメ国民揚々トシテ王徳ヲ領シ太平ヲ楽ムモノハ其ノ社会ニ対スル間接ノ功ナリ右ハ其ノ効力ノ大要ニシテ然カク効力アル事照々欧米礼文ノ各国ニ見ルベキナリ我省夙ニコヽニ見ルアリテ唱歌ヲ公学ノ一課ニ定メラレシト雖モ之レヲ実施スル亦易キニアラズ例ヘバ我国ノ音楽ニ雅俗ノ別アリ其ノ雅ト称スルモノ調曲甚高クシテ大方ノ耳に遠ク又其ノ俗ト称スルモノハ諞甚卑クシテ其害却テ多シ畢竟此ノ如クニテハ之ヲ学課トシテ施スベカラズ然ラバ西洋ノ楽ヲ彩リテ直ニ之レヲ用キバ事易キニ似タレドモ其ノ我ニ和スルヤ否ヤ未ダ知ルベカラズ ~(中略)~ 彼我和合シ一種ノ楽ヲ興サバ我公学ニ唱歌ノ課モ追々相立候様相可成ト存候依テ此頃ボ𠮟ストン公学音楽監督メイソン氏ト相議シ其ノ編著ノ音楽掛図二拠リ其楽譜ニ我歌詞ヲ挿ミ相試ミ候処先々相応ニ相聞候即チ掛図別ニ進呈候其委細ノ事ハ別紙ニ記載候可然御経費ヲ願フ 敬具' 이 건백서의 문장은 山住正巳(1967)『唱歌教育成立過程の研究』,東京大学出版会, pp.38~39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재인용했다. 한국어역과 하선은 필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見込み)」이라는 사신(私信)을 제출하는데, 그 내용은 이자와와 연명으로 제출했던 상신서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이었다.[14] 다른 점이 있다면 메가타는 일본에 창가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창가 과목을 우선 도쿄사범학교(東京師範學校)와 도쿄여자사범학교(東京女子師範學校)에 개설할 것, 둘째로 사범학교의 부속소학교, 유치원에서도 창가를 가르칠 것, 이러한 실험이 성공한다면 도쿄의 공립학교에서도 창가를 가르칠 것 등을 제안하며, 음악교육전문가 메이슨 초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열두 가지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귀국 후 이자와는 다시 한 번 1879년 3월 8일 「음악전습소설치안(音樂傳習所設置案)」을 문부성에 제출했다. 이 설치안에서 이자와는 음악을 진흥시키는 것은 교육상 급무이며 이것을 민간에 기대할 수는 없음으로 문부성 내에 음악전습소를 설치하여 음악진흥을 꾀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 경비와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상기의 이자와와 메가타의 상신서를 바탕으로 전습소가 만들어졌고, 서구의 창가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와, 이를 일본에 접목하기 위한 교사의 양성, 창가 교과서 제작 등의 시급한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전습소는 1879년 10월 23일 문부성 내의 '음악조사계(音樂取調掛)'로 승격되었고, 1885년 2월 '음악조사소(音樂取調所)'로 개칭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재차 '음악조사계'로, 1887년에는 도쿄음악학교(東京音樂學校)로 개칭되었다. 현재의 도쿄예술대학(東京藝術大學) 음악학부의 전신이다.

이상이 종래 이자와 슈지의 활약을 중심으로 한 근대 일본의 학교교육에 음악교육을 도입한 경위의 개요이며 흔히 말하는 정론이라 할 수 있다.

Ⅲ. 창가를 통한 애국심 교육

근대 일본의 교육체제와 교육이념은 1872년의 학제 반포 이후 1879년의 교

14) 目賀田種太郎의「我公学に唱歌の課を興す仕方に付私の見込み」전문은 山住, 前掲書, pp. 39~44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육령, 1880년과 1885년의 교육령의 개정에 이어, 1886년의 종별 교육령 반포까지, 긴 세월에 걸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 기본 골격이 확립되었다. 거기에 1890년에 공포된 교육칙어의 교육이념을 같은 범주에 넣고 생각한다면,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대략 메이지유신 이후 20여 년의 긴 세월에 걸쳐 충군애국(忠君愛國) 사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국민교육의 틀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황도주의(皇道主義)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주의 교육이다.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대 일본의 학교교육에 음악교육을 도입한 목적을 그야말로 순수예술론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자와가 처음 「아이치사범학교연표(愛知師範学校年表)」 속 「장래 학술 진보에 있어 필수의 건(将来学術進歩ニ付須要ノ件)」을 통해 제언했던 "지각심경(知覚心経)을 활발히 하여 정신을 쾌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호흡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학교 교육에 있어 창가유희(唱歌遊戯)의 목적과 효능이 그러하고, 미국에서 귀국 후 음악조사계의 책임자로서 상신한 「음악조사에 대한 계획서(音樂取調ニ付見込書)」를 통해 밝힌 "학업으로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고, 패와 장기를 튼튼하게 하며",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동시에 청력을 좋게 만들고", "패와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고", "사고를 치밀하게 만들며, 마음을 즐겁게 함과 동시에 선한 심성을 분기케 한다"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창가교육의 목적과 직간접적인 효능을 주장했다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던 것이 1882년에 완성된 일본 최초의 관선(官選) 창가집 『소학창가집(小學唱歌集)』(1882~84)이 만들어질 무렵부터 창가교육의 목적을 '덕성(德性)의 함양(涵養)'을 가장 중요시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창가교육의 목적과 이념의 변화의 배경에는 창가교육을 통해 도덕상의 효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교육정책의 전환이 있었다고 설명하며,[15] 그것을 1879년 음악조사계가 설치된 같은 해 8월에 발표된 메이지천황의 '교학성지(教學聖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념의 제시와 결부시켜 설명하는 것이 거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

15) 山住, 前掲書, pp.72~7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16]

1884년 2월 이자와는 문부경(文部卿) 오키 다카토(大木喬任)에게 '음악조사 성적신보서 (音樂取調申報書)'를 제출했다.[17] 이것은 음악조사계 창설의 개요에 대해서 기술한 '창치처무개략(創置處務概略)', '내외 음율의 이동연구에 대해서(內外音律の異同研究の事), 일본음악에 대해서(本邦音樂の事)', '음악과 교육의 관계(音楽と教育との関係)', '음악창가 전습에 대해서(音樂唱歌傳習の事)', '속곡개량에 대해서(俗曲改良の事)'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음악조사계의 사업에 대한 보고서였다. 이 가운데 '음악과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이자와는 이를 '장단 2음계의 관계' '건강상의 관계' '도덕상의 관계'로 세분하여 기술을 하고 있다. 그 중 도덕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도덕상의 관계
>
> 음악은 자연을 바탕으로 그 심정을 감동접촉하는 것으로써, 희열의 가곡은 인심을 기쁘게 만들고, 비애의 가곡은 인심을 비탄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어느 하나 심정의 감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아(正雅)한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음이 저절로 바르게 되고, 화악(和樂)의 음을 들을 때는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하고 바를 때는 사악한 생각이 밖으로부터 들어올 수가 없다. 마음에 사악한 생각이 없을 때는 선을 선호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것으로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고 속에 대항하는 것은 음악만한 것이 없다. 고어(古語)에서 말하기를 '禮樂不可以須臾去身'이라고, 성현들이 예악을 존중하는 것은 이와 같았다. 원래 유시(幼時)는 사람의 필생(畢生)에 있어 가장 감화가 빠른 시기여서 후래(後來) 선악의 구별을 표현함은 바로 이때의 훈도(薰陶)에 인유(因由)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에 이 유시에 가르치기를 지량至良의 가곡을 가지고 한다면 온량순정의 덕성을 발육함에 부족함이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16) 이와 관련해서는 졸고(2010)「근대일본의 '소리문화'와 창가(唱歌) -창가의 생성과 '음악조사계 (音楽取調掛)'의 역할을 중심으로-」『日本思想』제19호,pp. 126~133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음. 참조 바람.

17) 음악조사계의 규칙과 『소학창가집』의 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책임자였던 이자와 슈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음악연혁대강(音楽沿革大綱)'과 '메이지송 선정에 대해서(明治頌伊選定の事)'의 일부, 적어도 그 원안은 음악조사계 감사(監事)였던 고즈 센자브로(神津専三郎)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 伊沢修二(山住正巳校注),『音楽事始』,平凡社, 1971의 「해설」pp. 319~320 참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중략)

이로써 본 조사계에서 선정하는 것은 많은 부분 이러한 취지를 주로 하여 진력하여 평화롭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을 골랐다. 간간히 이의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화조풍월의 낱말을 그 사이에 섞어 심신을 열역(悅懌)하게 하고, 나도 모르는 선으로 바뀌고 사(邪)를 없애는 마음을 깃들게 하고, 오로지 덕육에 도움이 되는 것을 취용했다. 예를 들면 유치진학(幼稚進學)의 쾌정을 고무시키는 것에는 '進め進め' 와 같은 것, 붕우를 애모하고 교제상 신의를 두텁게 하는 심정을 양성하는 것에는 '霞か雲か' '蛍の光' 등과 같은 것, 부모의 은혜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에는 '大和撫子' '思ひ出れば" 등과 같은 것, 성주(聖主)의 덕택을 흠모하고 신도(臣道)를 다해야 하는 지정(至情)을 양성케 하는 것에는 '雨露に' '忠臣' 등과 같은 것, 존황애국의 적심의기(赤心義氣)를 환발(渙發)케 하는 것에는 '君が代' '皇御国' 등과 같은 것, 경신(敬神)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는 '栄かゆく御代' 와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창가가 교육상에 관계하고, 특히 체육 및 덕육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18]

교육에 있어서 음악의 효용에 대해서 먼저, '정아(正雅)한 노래'를 부름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만들며, '화악(和樂)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음악을 부르고 들음으로써 인간의 마음에는 사심(邪心)이 생기지 않고, 마음을 맑고 바르게 만드는 것은 음악 이외에 없음을 강조하며, 그렇기 때문에 덕육에 있어 음악이 꼭 필요하다고 끝맺고 있다. 얼핏 보면 이전의 이자와의 음악교육관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기술이 결국에는 '덕육'이라는 말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자료를 보면 이자와 슈지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계자들은 당초 서양의 창가를 일본교육에 도입함으로써 유아들의 인간성 형성과 정서의 발달, 나아가 일본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는 순교육적 효과를 기대했지만, 메이지 신정부는 창가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덕성을 함양하고, 충군애국의 정신을 주입시키길 원해 음악교육 본래의 목적이 권력에 의해 덕육과 충군애국의 교육정책으로 전환되어버렸다는 식의 해석

18) 伊沢修二(山住正巳校注), 前掲書, pp.150~15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 가능하게 된다.

근대 일본의 창가교육은 애시 당초부터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일본이라는 통일된 근대 국민국가를 떠받치는 신민(臣民)으로서의 자각과, 국가에 대한 애착, 군주에 대한 경외심과 충성심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전수한다는 덕육과 애국심과의 관계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1875년 2월 14일 문부성에서 간행한『문부성잡지(文部省雜誌)』제3호에는 애국심 과 교육의 관계를 강조하고, 창가가 특히 유효하다는 독일의 교육론이 소개 되었다.[19]

> 독일교육론 적역(摘譯)
> 애국심의 교육
>
> 소학교는 아동들을 위해 지기(志氣)를 정립하고 품위를 부여하는 곳이다. 누가 그 태어난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또한 누가 그 고향(舊里)을 애모하지 않으리오. 하물며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음은 인정이 아니다. 시르레르(독일의 유명한 시문가)가 말했다. 사람은 귀중한 본국을 위해 분발진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를 그 심리(心裏)에 두고 잊지 않으면 즉, 그 세력은 더욱 견고해 질 것이라고. 지금 모두에게 반드시 이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나라를 보기를 집을 보듯이 하게 만들고 싶으면 학교 말고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교육의 임무가 가장 귀중한 이유이다. (중략)
>
> 두 번째 애국심의 교육
>
> 사람이 어릴 적에 부모가 있는 집을 애모(愛慕)하고, 모국(生国)을 회념(懷念)하는 것은 그 집과 나라의 습관에서 발생하는 정이라고는 하지만 애국심은 또 별물(別物)이어서 전혀 상상의 감각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 감각은 소년 시절에 생겨 어른에 이르러 완전 성숙한다. 이에 지금 교육을 가지고 이 감각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아동 시절에 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보다 낫은 곳이 없다. 왜냐 하면 학교는 사람이 설립한 하나의 사회임으로 사중(社中)의 인간은 반드시 동일의 성질 동일의 품행을 발성하는 것에 의함이다. 특히 구내의 소학교는 그 부모가 있는 집과 본국과의 중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가장 긴요한 사중임으로 즉, 그

19) 원문은 国立国会図書館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http://kindai.ndl.go.jp)에서 검색 가능. (검색일: 2013년6월 10일) 번역과 하선을 필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동일한 성질, 동일한 품행은 그 소학교에서 이것을 육성하고, 퇴교 후에는 더욱 개명(開明)한 인민세계로 진입하여 그 성질품행을 더욱 고상한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애국심을 장육(長育)하기 위해서는 본국의 품속에 따라 다른 교수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하설(下說)하는 바와 같다.(중략)

병(丙) 애국 창가(唱歌)를 선정해 이것을 교수하고 이것을 부르게 해야 한다

그 어느 나라에도 호걸의 사라 부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상찬하는 시가가 있을 것이다. 이들 노래는 사기(士気)를 작흥(作興)시키고 심사(心思)를 진기(振起)시키는 것으로 아이들이 즐겨 배우려 하는 바이다. 또 이 노래를 만든 이유의 기전(記傳)을 설화(說話)한다면 더 한층 감각심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상 관계가 있는 날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이들 노래를 노래 부르게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든 개조(個條)는 애국심을 교육하는 제요(提要)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모를 애모(愛慕)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의 정(情)이지만 애국심은 달라 '상상(想像)의 감각(感覺)에서 생기는' 것이고, 이 감각을 일으키는 것은 어릴 때 학교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애국심을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애국 창가'를 골라 이것을 교수하고 노래 부르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와 슈지 등에 의한 창가교육 제언 이전에 이미 문부성에서는 애국심 교육을 위한 한 방법으로써 창가를 주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당시 문부성에서는 서구 여러 나라의 교육론(教育論)을 정력적으로 소개했었는데, 어느 교육론의 전역(全譯)이 아니라 특히 그 일부를 발췌해서 번역을 하고 그것을 문부성에서 발행하던 잡지에 게재했을 경우 그것이 문부성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한 번역물들은 일본의 학교교육을 확립해 가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20]

교육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자율적 사고와 행동을 방해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872년의 학제 반포 이후 1879년의 교육령, 1880년과 1885년의 교육령의 개정에 이어, 1886년의 종별 교육령 반포된 후에는 소학교칙(小學教則), 소학교교칙강령(小學校教則綱領), 소학교교칙대강(小學校教則大綱) 등을 통해 국가가 학습내용을 직접 규정하였는데, 그것이 특히 사회나 역사교육

20) 山住正巳, 前揭書, p.1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일 경우에는 극단적 자국중심주의 사상을 형성하며, 그 결과 아이들은 자유로운 역사관에 기초한 국가관을 갖기보다는 맹목적으로 국가에서 강제하는 역사관을 가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편협하고 편중된 자국중심주의 사상에 무의식중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Ⅳ. 애국창가집으로서의『소학창가집(小學唱歌集)』

이자와 슈지와 함께 일본의 학교교육에 창가를 도입하기 위해 활약했던 다나카 다네타로가 학교교육에 있어 음악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다름 아닌 이와쿠라사절단(岩倉使節団)의 일원으로서의 구미체험, 그 중에서도 서양음악의 체험에 있었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 본다. 다나카는 1871년 신정부의 문부대승(文部大丞)에 임명되어 이와쿠라사절단에 이사관(理事官) 자격으로 참가한다. 사절단의 공식보고서인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의『특명정권대사미구회람실기(特命全権大使米欧回覧実記)』(1878)에는 사절단 일행이 방문했던 많은 곳에서 서양음악을 접했다는 기술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등장 횟수가 가장 많았던 음악에 관한 기술은 주로 사절단의 입출항 등의 공식적인 외교의례 시에 연주된 음악이었으며, 이어서 학교를 시찰했을 때의 음악수업, 군대에 소속되어 있던 군악대에 대한 언급이었다.[21]

오쿠나카 야스토는 특히 보스톤에서 개최된 '태평악회(太平樂會)'에 참가했던 사절단이 '태평악회'의 기술에 많은 자수(字數)를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음악에 의해 애국심을 유발시키는 장치로써 '태평악회'를 보고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22] 즉, 사절단은『특명정권대사미구회람실기』를 통해 문명국에는 애국심 및 애국심을 유발하는 내셔널 뮤직(국민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일본 최초의 관선 창가집인『소학창가집(小學唱歌集)』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극명하다. 이자와 슈지는 1879년 도쿄사범학교(東京師範學

21) 奥中康人(2008)『国家と音楽』,春秋社, p.51.
22) 奥中康人, 上掲書, p.8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校) 교장과 음악조사계(音樂取調係)의 책임자 직을 겸직하면서 메이슨의 전폭적인 협력에 힘입어 창가집 편찬에 착수, 1882년 일본 최초의 서양식 악보가 실린 창가집인『소학창가집』초편(初編)을 완성한다. 1879년 음악조사계 설치 후 불과 3년 만의 일이었다.『소학창가집』은 1882년 4월부터 1884년 3월에 걸쳐 모두 3편이 출판되었는데, 메이슨이 미국에서 음악교육에 사용했던 주로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의 유명한 민요에 이나가키 지카이(稲垣千穎)・사토미 다다시(里見義)・가베 이즈오(加部巖夫) 등의 문학자가 가사를 만들어 붙인 곳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학창가집』전 3편에 실려 있는 91곡의 창가를 대상으로 이를 각 주제 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속의 숫자는 초편・2편・3편의 구별을 나타낸다.

1) 충군애국(忠君愛國) 사상을 소재로 한 창가

いはへ(초), 千代に(초), 野辺に(초), うつくしき(초), 君が代(초), 薫りにしらるゝ(초), 雨露(초), 玉の宮居(초), 年たつけさ(2), みたにの奥(2), 皇御国(2), 栄行く御代(2), 五日の風(2), 天津日嗣(2), 太平の曲(2), やよ御民(3), 寧楽の都(3), 富士筑波(3), 治まる御代(3), 祝へ吾君を(3), 招魂祭(3)

2) 일본의 사물(事物)을 소재로 한 창가

わが日の本(초), 富士山(초)

3) 유교적・도덕적 사상을 소재로 한 창가

大和撫子(초), 五常の歌(초), 五倫の歌(초), あふげば尊し(3), 母のおもひ(3), 小枝(3), 誠は人の道(3), 忠臣(3), 四の時(3),花月(3)

4) 자연물을 소재로 한 창가

かをれ(초), 春山(초), あがれ(초), 和歌の浦(초), 春は花見(초), 鶯(초), 春風(초), 桜紅葉(초), 花さく春(초), 見わたせば(초), 松の木蔭(초), 春のやよひ(초),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蝶々(초), 閨の板戸(초),若紫(초), 隅田川(초), おぼろ(초), 鳥の声(2), 霞か雲か(2), かすめる空(2), 燕(2), 鏡なす(2), 岩もる水(2), 岸の桜(2), みてらの鐘の音(2),春の夜(3), なみ風(3), 雲(3), めぐれる車(3), 墳墓(3), 秋の夕暮(3), 古戦場(3), 秋草(3), 園生の梅(3),橘(3), 四季の月(3), 白蓮白菊(3), 春の野(3), 菊(3), 千草の花(3), 頭の雪(3), さけ花よ(3),高嶺(3)

5) 근학・계몽사상을 소재로 한 창가

蛍(초), 年たつけさ(2), 学び(3), 千里のみち(3), 楽しわれ(3), 花鳥(3), 心は玉(3)

6) 그 밖의 것을 소재로 한 창가

ねむれよ子(초, 자장가), 思ひいづれば(초, 망향가), 遊猟(2), 才女(3), 船子(3), 鷹狩(3), 瑞穂(3, 神), きのふけふ(3, 친구)

가사의 분석을 토대로『소학창가집』전 3권에 실려 있는 91곡의 노래를 분류해 보면 대략 위와 같은 6개의 큰 주제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 동식물을 포함한 일본의 자연물을 소재로 한 노래가 43곡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이다. 일전에 필자는『소학창가집』의 노래를 분석하면서 이와 같은 노래가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는 이자와가 일본에 처음으로 창가를 도입함에 있어 목표로 했던 지각심경(知覚心経)을 활발히 하여 정신을 쾌락하게 만들고,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며 즐겁게 함과 동시에 선한 심성을 분기케 한다는, 창가교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결과" 라고 보았다.[23]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을 상징하는 자연물과 동식물을 노래하는 창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창가와 애국심 교육과의 관계로 이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인용했던『문부성잡지(文部省雑誌)』제3호에서 소개하고 있는 '애국심의 발동(發動)'에서는 그 나라의 국토와 자연물이야말로 고유의 문자와 함께 아동들에게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갖게 하는 근원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24]

23) 졸고(2011)「메이지(明治) 전기 국민국가 형성과 교육 - 학제(学制)의 변천과 창가(唱歌) 교육을 중심으로- 」『日本思想』제21호, p.18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첫 번째 애국심의 발동

사람이 본국(本國)을 사랑하는 것은 그 유년(幼稚) 시절 친가(親家)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 이미 그 맹아(萌芽)를 볼 수 있다. 대체로 부모의 애육(愛育)을 받고 있는 토지는 나 또한 항상 이것을 애경(愛敬)하는 마음을 잃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국(生国)의 산도 계곡도 화초(花草)도 수목(樹木)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그 문자를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동의 정신에 자연의 성질을 부여하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가지친족(加之親族)의 교의토속(交誼土俗) 제식(祭式) 등은 마침내 모국 고유의 풍습에 훈염(薰染)되어, 이미 아동의 정신에 있어 자연스럽게 친니(親昵)의 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생국을 떠나 타국으로 옮겨감을 기뻐하는 이 없고, 또 타국에 와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없다. 이는 유년 때부터 마음을 모국에 고결(固結)했다는 증거이다.

본국이란 일군(一君)이 통치하는 전국을 칭하는 것으로, 그 경외(境外) 또한 아주 넓다고는 하나 특히 국군(國君)과 국민은 마치 한 가족과 같아서 이것을 국족(國族)이라 한다. 즉, 부국(父國)이라 하고 국부(國父)라고 하고 국자(國子)라고 하는 이 삼자는 함께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정을 유지하고, 친목하여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본국 정부 하에 있으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친정(親情) 한층 견고하여 보국(報國)의 마음(志) 또한 더욱 두텁고, 본국을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안전을 희망하기에 이른다.

인간은 태어나고 자란 토지와 자기가 속한 집단과 집단 성원에 대한 친근감을 갖으며, 외부의 미지의 인간들에 대해서는 경계와 공포・모멸감 등의 원초적이고도 자연발생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애국심의 기저를 이루는 자연발생적인 감정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는 애국심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먼저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국가라는 개념 성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토지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애착을 인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국가라는 단위로 이를 승화시킬 수 있다. 즉, 애국심은 자연발생적인 감정이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형성되는 작위적인 개념인 것이다.

근대 일본의 경우 '애국(愛國)'은 '충군(忠君)'과 결합하여 '충군애국(忠君愛

24) 원문은 国立国会図書館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http://kindai.ndl.go.jp)에서 검색 가능. (검색일: 2013년6월 10일) 번역과 하선을 필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國)'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했으며, 주군에 대한 충성이야말로 애국의 중핵을 이루는 것임을 보여준다. 절대군주 천황을 국가의 도덕적 중심으로 두는 충군애국 이데올로기는 학교라는 인위적인 조직에서 교육이라는 작위적 행위에 의해 형성된 최고의 교육이념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기타로 분류한 8곡을 제외한 나머지 40곡의 대부분이 근학(勤學)과 계몽사상을 소재로 하는 약간의 노래를 제외하고 모두 천황이나 일본에 대한 칭송, 아니면 효행과 주군에 대한 충성 등, 충군애국 사상을 소재로 만들어진 노래로 구상되어 있는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Ⅴ. 마치며

본디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 그 중에서도 음악교육은 인간성 형성의 한 측면을 담당하는 것으로, 외부 환경에 의해 감화(感化) 받기 쉬운 어린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정서의 발달과 온화한 심정 표현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처음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음악교육이 시작된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음악이 갖는 순수한 예술적 영역에 대한 관심보다는 덕육(德育) 상의 필요라는 기능적 측면이 특히 강조되었고, 1945년 아시아·태평양전쟁 패전 이전까지 일본의 음악교육은 순수 예술교육과는 요원한 것으로 국어·수신(修身)·지리·역사 과목과 더불어 국가주의적 정조(情操)교육, 즉 애국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이것은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일본의 교육사상(教育思想) 연구사의 정론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음악교육 본연의 순수한 교육적 목적으로 시작한 근대 일본의 창가교육이 메이지 20~30년대를 전후로, 구화만능사상에 대한 반발과, 자유민권운동 등에 대한 견제, 나아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르며 점차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학교교육의 본연의 목적이 변질되어 갔다는 식의 연구가 근대 일본의 음악교육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는 말이다.

이러한 인식은 다름 아닌 일본에 처음으로 창가교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격한 공헌을 했던 이자와 슈지가 창가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전담할 음악조사계 설치를 위해 상신한 일련의 자료 분석에 따른 결론으로, 종전의 창가교육사의 커다란 흐름으로 파악되어 온 정설이다.

그러나 창가교육은 애시 당초부터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일본이라는 통일된 근대 국민국가를 떠받치는 신민(臣民)으로서의 자각과, 국가에 대한 애착, 군주에 대한 경외심과 충성심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전수한다는 애국심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875년 2월의 애국심을 교육하는 데 있어 창가가 특히 유효하다는 『문부성잡지(文部省雜誌)』제3호의 교육론의 존재가 그러하고, 1882년 4월부터 1884년 3월에 걸쳐 모두 3편이 출판된 일본 최초의 관선 창가집인 『소학창가집』에 실려 있는 노래의 면면이 바로 그러하다. 따라서 처음에는 순수한 예술적 차원에서 음악교육이 도입되었지만 점차 국가주의 성향을 띠기 시작하면서 덕육의 색채가 강해졌다는 식의 종래의 이해 방식은 학교교육에 창가를 도입하는 과정을 전후로 하여 일어난 교육계 안팎의 움직임을 너무 단순화 시켜버린 계통적 파악에 지나지 않다.

의회의 개설이나 사법・행정 조직의 정비와 같은 통치조직의 완비나 학교조직의 정비, 나아가 철도와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보다 훨씬 앞서 국책사업으로써의 음악조사계나 동경음악학교와 같이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이 메이지 신정부 발족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설치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불요불급(不要不急)의 문화정책, 그 가운데에서 창가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교육 정책이 그 어떤 제도나 인프라의 정비에 앞서 먼저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다는 것은 메이지 신정부의 국민국가 형성에 있어 음악교육, 즉 창가교육이 그 어떤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신정부의 수뇌부는 국가신도(國歌神道)적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국체(國體) 형성이라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궁극적 지향점과, 국민(國民) 혹은 신민(臣民)으로서의 자각과 지켜야 할 규범 형성을 위한 심리적・정서적 도구로써 음악교육을 이용했다. 즉, 신정부의 교육 수뇌들은 음악교육의 순기능으로써 어린아이들의 정조(情操)와 신체 발달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근대 국민국가를 떠받치는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군주에 대한 충성심,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애착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전수한다는 애국심 교육의 일환으로 음악교육을 이용했던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文部省音楽取調掛(1887)『小学唱歌集』初編, 大日本図書, 전체.
遠藤宏(1948)『明治音楽史考』,有朋堂, p. 52
唐沢富太郎 外(1961)『日本教育史』,教育学テキスト講座 第3巻, 御茶の水書房,, p.171.
山住正巳(1967) 『唱歌教育成立過程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67
伊沢修二(山住正巳校注)(1971)『音楽事始』,平凡社, pp. 319~320
中村理平(1993)『洋学導入者の軌跡』, 刀水書房, p.462.
奥中康人(2008)『国家と音楽』, 春秋社, p.51.
山東功(2008)『唱歌と国語』, 講談社新書, 2008, pp. 12~35.
이권희(2010)「근대일본의 '소리문화'와 창가(唱歌) -창가의 생성과 '음악조사계 (音楽取調掛)'의 역할을 중심으로-」『日本思想』제19호. pp.118~122, 126~133
_____(2011)「메이지(明治) 전기 국민국가 형성과 교육 - 학제(学制)의 변천과 창가(唱歌) 교육을 중심으로-」『日本思想』제21호, p.186.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화자료http://dl.ndl.go.jp(검색일:2013년 6월10일)
국립국회도서관 근대디지털라이브러리 http://kindai.ndl.go.jp(검색일:2013년 6월15일)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검색일:2013년 6월15일)

❖ 투고일 : 2013.06.25
❖ 심사완료일 : 2013.08.15
❖ 게재확정일 : 2013.08.1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